

WMC 기도학교 시리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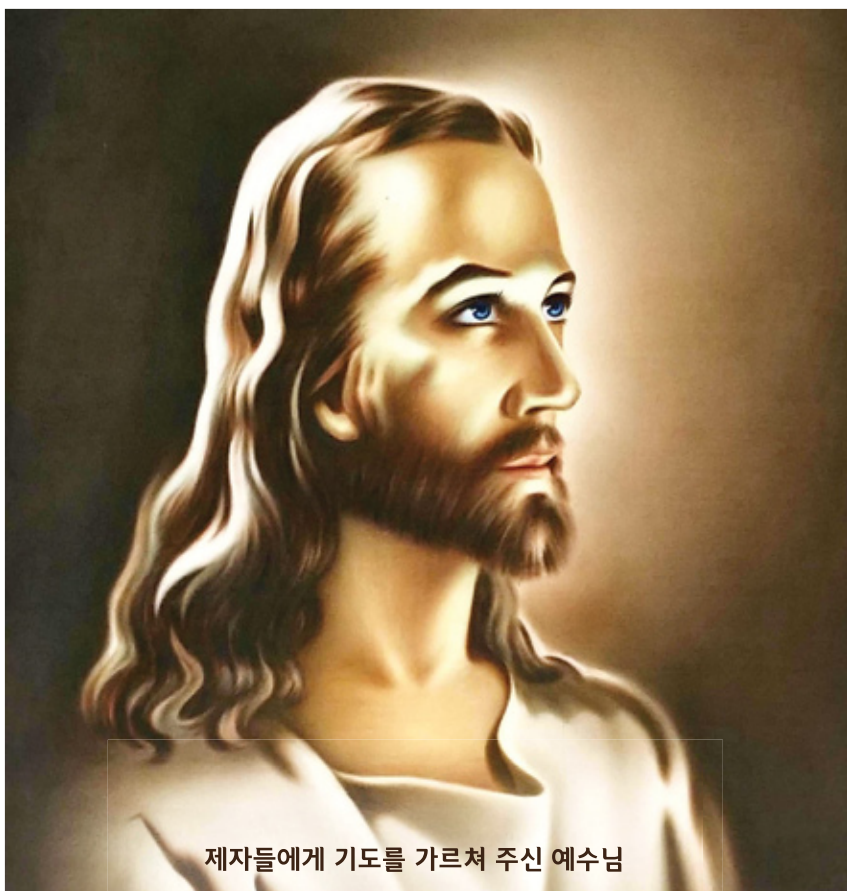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How You should pray.

제 4 권

주기도 강해

Lord's Prayer Commentary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저자 김정복 목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4) “주기도 강해”를 발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미 주기도에 관해 집필 하신 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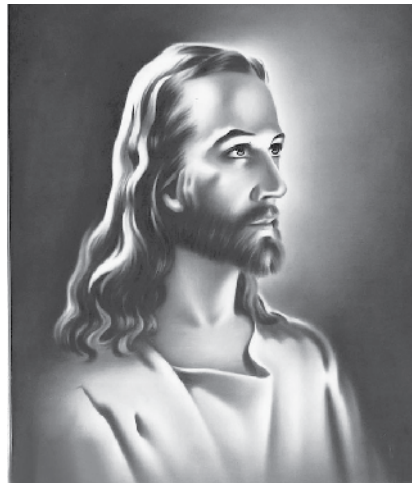
그러나 부족하지만 1985년 3월부터 34년 이상,
미국 L.A., “WMC 기도학교”에서 성경적 기도를 강의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가
너무나 깊고 오묘하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범된 “성경적 기도”임을 깨닫고
그동안 WMC 기도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안을 중심으로
주기도 강해 (Lord’s Prayer Commentary)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기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0.
Los Angeles에서,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4)

How You should pray.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4)

제 1 강의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제1권)

제 2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

제 3 강의 그런즉 내개로 돌아오라(Return to God)

제 4 강의 예수님의 삶을 통한 기도교육

제 5 강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 (제2권)

제 6 강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제3권)

제 7 강의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제 8 강의 예수님의 중보기도

제 9 강의 보혜사 성령님과 성령 충만

제10 강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제11 강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12 강의 주기도 강해 (제4권)

1. 서론 | 5

2. 주기도를 가르치신 배경과 이유 | 6

1)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 | 6

2) 예수님의 골방기도 | 8

3)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 9

4)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 10

5) 제자들의 요청 | 11

3.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 11

1)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먼저 부른다 : 회개 (Confession) | 1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설

2) 하나님 청원 : 찬양 (Adoration) 과 감사 (Thanksgiving) | 15

(1)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 해설

(2)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청원 해설

(3)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청원 해설

3) 우리의 청원 : 간구 (Supplication) 와 도고 (Intercession) | 23

(1) 우리의 양식에 관한 청원 해설

(2) 우리의 죄에 관한 청원 해설

(3) 우리의 시험과 악에 관한 청원 해설

4) 송영 | 37

하나님 나라(Kingdom), 하나님 권세(Power), 하나님 영광(Glory)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마6:9-13)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눅11:1-4)

1. 서론

주기도(Lord's Prayer)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성경적 기도(Biblical Prayer)의 모범이다.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좋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라는 뜻이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청원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到來)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청원이다.

셋째, 우리의 세 가지 청원

우리의 세 가지 청원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糧食)에 관한 청원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청원이며, 사탄, 마귀의 시험과 악에서 구해 달라는 청원이다.

2. 주기도(The Lord's Prayer)를 가르치신 배경과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The Lord's Prayer)를 가르치신 배경과 이유를 보면, 마태복음(마6:9-13)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외식하는 기도(hypocritical Prayer)에 대해서는 골방기도(마6:6)를, 이방인들의 잘못된 중언부언하는 기도(Babbling like pagans Prayer)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를 배우라고 하였고, 누가복음(눅11:1-4)에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 1)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마6:5)
- 2) 예수님의 골방기도(마6:6)
- 3) 이방인의 중언부언 하는 기도(마6:7)
- 4)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마6:8, 7:7-8)
- 5) 제자들의 요청(눅11:1)

1) 유대인의 외식하는 기도(마6:5)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관행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어귀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드렸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가르치셨다.

유대인의 기도: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 (1)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이며,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이다.
- (2)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의 티를 뽑으려는 자의 기도이다.
- (3)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고 사랑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의 기도이다.
- (4)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길게 하는 기도이다.
- (5)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이다.

○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6:5)

○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마23:23-36)

○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7:3-5)

○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29:13)

○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눅20:47)

○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18:9-14)

2) 예수님의 골방기도 (마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 (1) 골방기도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 사이에서 아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다.
- (2) 골방기도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드리는 애정의 기도이다.
- (3) 골방기도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신부가 드리는 사랑의 기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이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의 돌보심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마6:8, 32),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입을 통하여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 나의 말 못할 사정, 나의 고통, 누구도 이해 못할 나만의 아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듣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회당과 길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중보자이시다. 골방기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사랑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 방에서, 기도의자에서, 문을 닫고, 나와 단둘이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6)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4:9-10)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6-18)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8:34)

요한 낙스(John Knox)의 기도방(Prayer Room)

필자가 1980년 3월에 영국 Scotland Edinburgh에서의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후에, 요한 낙스의 집을 방문하였다. 자그마한 집인데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에 오르니 서재 옆에 작은 구석방이 있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이 구석방이 요한 낙스가 항상 기도하던 기도방(Prayer room)이라고 한다. 나는 크게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의 좁은 아파트 안에 기도방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기도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요한 웨슬리(John Wesley)의 기도의자(Prayer Chair)

필자가 1989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국 런던 교외에 있는 WEC 선교부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에, London 교외에 있는 요한 웨슬리의 주택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층 웨슬리의 서재에 들어가니 서재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 기도의자와 무릎 받침대가 있다. 요한 웨슬리가 매일 아침, 무릎 받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자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기도방 대신 기도의자와 무릎 받침대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의자에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필자가 마련한 기도의자와 무릎받침대

3) 이방인의 증언부연 하는 기도(마6:7-8)

예수님께서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시며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다.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생각하고 길게 증언부연하

는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Babbling like pagans)하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6:7)

4)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마6:8, 31-32, 7:7-8)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동물에게는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인이 알아서 주지만, 자녀에게는 반드시 물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물같이 취급하시지 않고,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하시고, 구하면, 들으시고,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우하시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구한다고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6:8)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1-32)

○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7:7-8)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5-17)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6-7)

5) 제자들의 요청(눅11:1)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이를 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자기들(유대인)의 기도의 삶과 다른 것을 알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 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를 가르치셨다.

3.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Lord's Prayer)의 내용

1)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먼저 부른다 : 회개(Confessio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기도이다.
-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기도다.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속량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3)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죄인인 내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며, 그 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이다.

눅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죄와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은 어떤 것인가?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눅15:11-13)

- (1)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택한 후에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눅15:13)
아버지냐? / 재물이냐?
아버지와 함께 사느냐? /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느냐?
- (2)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눅15:13)
아버지 중심이냐? / 자기(나) 중심이냐?
- (3) 아버지를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더불어 사는 둘째 아들(눅15:13)
아버지께 무관심 / 오직 세상에만 관심, 세상만 사랑
- (4)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형(눅15:28-30)
아버지께 불만족, 아버지께 불순종, 아버지께 반항하는 형의 삶

○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15:28-30)

우리의 마음 속에는 형과 둘째 아들의 마음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형과 같이, 때로는 둘째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하고 둘째는 세리와 죄인을 뜻한다. 두 아들은 모두 탕자들이다.

○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눅15:1-2)

나의 참된 분깃(portion)은 어떤 것인가?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나) 여호와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 다윗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라 하였다.
마) 시편기자는,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민18:20)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시23:1-3)

○ 여호와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시119:57)

○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시119:113-114)

○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시119:127)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시18:1-3)

(5) 둘째 아들의 회개(눅15:17-19)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부름이다. 과거에 아버지를 버리고 재물을 갖고, 떠났던 둘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인정(admission)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죄를 아버지께 자백(confession)하는 것이 회개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분깃(portion)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다.

내가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사탄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는 사람 앞에서 죽고, 이웃은 내 앞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고전15:31, 갈2:20, 눅9:23)

○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눅15:17-19)

(6) 아버지의 용서(눅15:20-21)

성경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가 입맞춤으로 이루어진 예(例)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과 입을 맞춘은 아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삼하14:33)으로, 신약에는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가 입맞춤(눅15:20)으로 나타난다.

○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삼하14:33)
○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눅15:20-21)

(7)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눅15:22-23)

아버지는 용서한 아들에 대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 가) 제일 좋은 아들의 옷을 입혀줌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 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아버지와의 언약을 확인시켜준다.
- 다) 밭에 신을 신 켜줌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확인시켜준다.
- 라)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아들임을 세상에 공포하고 아들 됄을 확인시켜 준다.

○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눅15:22-23)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15:10)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4-17)

○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갈4:6-7)

2) 하나님께 대한 청원 : 찬양(Adoration) 과 감사(Thanksgiving)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Adoration)과 감사(Thanksgiving)의 기도이다.

첫 번째 청원 : 하나님의 이름(Your Name)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청원 : 하나님의 나라(Your Kingdom)가 임(臨)하시오며,
세 번째 청원 : 하나님의 뜻(Your Will)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 해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곧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이다.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같은 말이다.

○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출3:13-15)

○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들이니라(요1:12-13)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다.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분이시다.

(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계4:8)

(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말2:2-3)

(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말4:2-3)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만 피조물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거룩한 생명(a living being)이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시고(계4:8),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이시다.

- (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고(창2:17),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었다. 또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잃게 되었다.
- (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사 저를 믿는 자 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 (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
- (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
-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
-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 (차)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될 때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3:14)

○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계4:8)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고(창1:26)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 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일4:16)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딤후4:5)

○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1:31)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5-16)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나?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있나?

나) 자아(自我), 자존심(自尊心), 자기욕망(慾望)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 나의 삶 곧 나의 언(言), 행(行), 심사(心事)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욕(辱)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본다.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1:23)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2:20)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14:7-8)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2)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청원 해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어디에 임하는가?

○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재(臨在)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신다.

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재해 계신가?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재해 계신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교회에 임재해 계신가?

(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조국에 임재해 계신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임재해 계신가?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교회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조국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아야 한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노예의 삶을 뜻한다. 당시 죄인이나 종이나 포로들이나 노예들은 신을 벗고 살았고, 주인을 경외하며,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으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 할 수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성도는

- (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 (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 (마) 하나님의 주권아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5)

○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사20:1-5)

○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렘39:5-7)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4:5)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벧전1:15-16)

○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

(3)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청원 해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소원(所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하시고 운명하신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계속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하시니(눅22:42)

○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19:28-30)

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승천(행1:9)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하신 말씀에 있다.

- (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 (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다)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
- (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권능을 받아야 하나?

성도가 받아야 할 권능은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사랑의 권능이다. 이 세 가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1:8-9)

○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4:1-2)

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소원

- (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 (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 (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어야 한다.

(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糧食)이 되어야 한다.

(바)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냄새)가 풍겨나야 한다.

(사)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3:5)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2:14)

○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후3:3)

3) 우리의 청원 : 간구(Supplication)와 도고(Intercession)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우리에게 대한 간구(Supplication)와 도고(Intercession)이다.

첫 번째 청원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daily bread)을 주시옵고,

두 번째 청원 : 우리에게 죄(debts)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청원 :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evil)에서 구하시옵소서.

(1) 우리의 양식에 관한 청원 해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성경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糧食)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그리고 참된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간식(間食)”이 아니고, 매일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밥과 같은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은 성도가 매일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行)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의 양식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참된 양식이다.

가) 육신의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양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건강에 유익한 정결한 양식이다.

- (가) 구약성경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고(레11:2-23, 신14:3-21) 피는 먹지 말라고 되어있으며(레17:11), 신약성경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금지한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행15:20)고 되어있다.
- (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탐식, 담배, 술, 마약 등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다.(잠23:29-35, 고전10:31)
- (다) 구원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고전3:16),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것(고전6:19-20)이므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신14:2)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3:16)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6:19-20)

○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시111:5)

○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55:2)

○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

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쏘는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켈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잠23:29-35)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심령으로 먹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이 아니고 매일 먹어야 하는 필수적인 주식(主食)이다.

○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매일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 먹기 위해서는, 나는 입을 크게 벌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가) 나는 말씀을 먹기 위하여 먼저 내 입을 매일 벌려야 한다.

“내가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는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나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나) 나는 말씀을 배에 넣어야 한다.

“네 배에 넣으며” 하는 말씀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내 것으로 삼아, 말씀을 믿고, 의존하고,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다) 나는 창자에 채워야 한다.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신 말씀은, 말씀이 나의 오장 육부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

양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이 힘이 되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8:3)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行)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신 소명(召命)과 맡은 바 사명(使命)에 죽도록 충성하여야 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내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예수님의 양식이다.

○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2-34)

○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라) 참된 양식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3-58)
- 2)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3-35)
- 3)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서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 사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고(마26:26-28),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6:53)고 하셨다.
- 4)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요7:37-39)

- (1)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하며,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나는 온전한 연합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 (2)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요 10:30), 예수님을 먹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 (3) 참된 양식은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요, 죄 사함을 얻게하는 언약의 피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결코 주리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유월절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라고 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한다.

이 성찬식에 대한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과 Martin Luther의 공재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과 John Calvin의 기념설(記念說, Commemoration)로 나누어지며, 기독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 하신 “기념설(紀念說)”로 한다.

○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 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6-28)

○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눅22:19)

○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11:23-25)

(2) 우리의 죄에 관한 청원 해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s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청원이다.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였을까?

가) 성도(Saint)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 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삿을 자력(自力)으로 지불했거나,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롬3:23-24)
- 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debtors)가 된 것이며(롬8:12), 빚진 자가 채주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채주의 종(slave)이 되는 것이 율법이다(잠22:7), 예수님의 사랑의 빛, 용서의 빛을 갚지 못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slave)이라고 고백하였고(롬1:1), 예수님의 친 동생인 야고보(약1:1)와 유다(유1:1)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Slave)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롬8:17, 갈4:7)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고 하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 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 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18:21-22)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값으로 죽어야 할 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값으로 죄 사함을 얻고, 성도(Saint)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성도의 말이 생각난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 예수님께서 형제의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시며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35)

○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막11:25)

○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눅17:4)

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마16:15)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하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그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마16:19)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천국열쇠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야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고백”을 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천국열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 속량함을 받은 성도는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18:21-35)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다.

- (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라) 예수님의 사랑(아가페)안에서 사는 자는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한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4-15)

라)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모른다.

(가) 육(肉)에 속한 사람(Natural man)은 하나님의 사랑(Agape)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자(Natural man)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Agape)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모른다.

(나) 육신(肉身)에 속한 사람(Carnal man, mere Infants)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자(Baby Christian)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말한다. 그는 믿음이 연약하여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용서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으나,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롬7:21-25)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 2:14-3:3)

(3) 우리의 시험과 악에 관한 청원 해설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evil)에서 구하시옵소서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가) 어떻게 사탄(satan)의 시험(temptation)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를 시험(temptation)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지금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예방기도이다.

사탄의 시험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다.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므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할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므로 사탄이 기도하는 성도를 시험하지 못한다.

(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요1:1)

하나님은 말씀이시므로 성경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쉬지 않고 깨어 기도 할 때에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①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사탄은 나를 시험하지 못한다. 특히 내가 금식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기도할 때에는 사탄은 나를 떠나지만 금식이 끝났을 때,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다.(마4:2-3)

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자를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런 유(類)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 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마17:21, KJV). 예수님은 기도로 귀신을 작은 자에게서 나가게 하셨다.

② 기도는 사탄의 시험, 내가 마셔야 하는 잔,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③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며, 방법이다.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However, this kind g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NKJV) (마 17:21)

○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눅22:40)
 ○ 어찌하여 자느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22:46)
 ○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

(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요4:24)

하나님의 영(Spirit)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사탄의 시험과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함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삶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전15:31)고 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산다는 의미이다.

- 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2:20)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사탄의 시험과 죄악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14:6)

- ②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롬8:5-11),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

- ③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신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구약의 제사제도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피와 함께 드렸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는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피와 함께 드렸다. 다만 피 없는 제사는 소제(Grain offering)로 이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는 거룩한 제사이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전2:15-16)

○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5-17)

나) 그러면 어떻게 악(惡, evil)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만 악(evil)에서 구하시옵소서”하는 기도는, 이미 악(evil)에 빠져 있는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이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깨어서 기도하면, 사탄의 시험을 대적할 수 있지만, 이미 악에 빠져있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과 기도로 대적하여야 한다.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엡6:10-18)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하는 마음은 내안에 있으나 아직도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도다. 하는 바울의 탄식과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악에 빠질 수 있다.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와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악과 대적하여야 한다.

(가) 말씀은 하나님이다.

오직 말씀과 회개와 금식과 기도로 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령 충만할 때에 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성육신하신 말씀이므로,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라는 뜻이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악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길로 살아갈 때에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즉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며, 육신의 길은 멸망 받을 자의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께서서 즉시 손을 내 밀어 그를 붙잡으사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신(마14:31),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하는 기도는 악에 빠져있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와 금식과 말씀과 기도로 악과 싸워야 하고, 악에 빠지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은 함께 악에 빠져있는 자를 위하여 간절한 사랑의 도고(Intercession)를 하여야 한다.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4:5)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

○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롬8:5-8)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23:4-5)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4) 송영

나라(Kingdom)와 권세(Power)와 영광(Glory)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태초에 천지와 만물과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시간과 공간에 구속 받지 않고 초월해 계시며 천지 모든 곳에 항상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항상 현재이며, 영원하며, 사람은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버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렐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지 - 고 - 마 위 요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고 - 마 위 요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고 - 마 위 요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 렐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 지 - 신 - - - -
 나 - 를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렐 루 - 야 할 레 르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렐 루 - 할 - 렐 루 - 할 - 렐 루 야 -



저자 김정복 목사 / Rev. Kim Chung Bok
 기도학 교수 / Professor of Prayerology

- 경력
- WMC 선교회 대표 겸 순회 선교사
 - WMC 국제기도학교 대표 겸 교수
 - LA 예본교회 개척 및 원로목사
 - 월간기도 편집인 겸 발행인
 - Calvin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교수역임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중앙간사 역임
- 학력
- Calvin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Ph.D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Min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h.M
 -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MBA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BA
 - 경기 중고등학교 졸업 (1958년도/ 54회)
- 저서
- 17)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권, 2권, 3권, 4권, 2019년)
 - 16) 성경에 나타난 회개 (WMC, 2018)
 - 15) 성경에 나타난 죄 (WMC, 2017)
 - 14) 주기도 강해 (WMC, 2017)
 - 13) 성경 기도교육 세미나 기도학교 강의교재 (WMC, 2014)
 - 12) 산상수훈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교육 (보이스사, 2012)
 - 11) 시로 드리는 기도 (보이스사, 2009)
 - 10) 성경기도백과 (보이스사, 2007년)
 - 9) 성경적 기도와 큐티 (보이스사, 2007년)
 - 8)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보이스사, 2005)
 - 7) 기도학교를 통한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000년)
 - 6)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쿠파출판사, 1997년)
 - 5) 인덱티브 성경연구 방법론 (학위논문, 1995년)
 - 4) 옥중 목회서신 인덱티브 성경연구 (쿠파출판사 1994년)
 - 3) 로마서 인덱티브 성경연구 (쿠파출판사. 1993년)
 - 2) 성경적기도 (생명의 말씀사, 1993년)
 - 1) 주체별 기도연구 (크리스찬서적, 1986년)



기도하시는 예수님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Rev.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 기도학 교수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